

후지보 니트부 - “V-업” 등으로 경상 흑자화

후지보의 니트부는, 3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적자로 “니트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”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었는데, 프로·비타민(pro-vitamin)을 섬유에 고착한 소재인 “V-업(up)”이 히트 치면서 2001년도 하반기에 수지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, 2002년 상반기에는 경상(經常)흑자를 보이기 시작하였다. 2002년 춘하절 판매전에서는, 순면 “땀 땀 방지 가공” 소재인 “디스노티스(Disnotice)”도 히트를 쳐, 2002년도 하반기에는 흑자 폭이 더욱 커졌다.

니트부에서는 10여년 전까지 판매고의 50% 정도는 신사 외의용 소재가 차지하고 있었다. 이 시장이 이웃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, 니트부는 중고령 부인용 외의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로 하였다. 그리하여, 관례에 따라 소재를 생산해 놓고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, 그 당시로서는 독특하게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. 그래서 영업 사원과 함께 편성기술자와 가공기술자도 고객을 방문하여, 기술상담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내주는 방식을 추진하였다. 이와 같은 판매체제를 궤도에 올리면서, “V-업” 등이 히트 상품으로 되어 현재는 판매액의 40%를 부인 외의용 소재로 판매실적을 올리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다.

후지보 니트부를 흑자체질로 바꿔 놓는데 크게 기여한 “디스노티스”는 10여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서, 후지보 와카야마 공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공이다. 천의 표면에는 땀이 옷에 땀 것이 눈에 안 띄게 아주 얇게 발수처리를 하였다. 그리고 뒷면에는 땀을 즉시 빨아들여 확산시키는 가공이 되어 있다. 이 소재가 춘하절 상품 판매전에서 예상외로 크게 히트 쳐 판매고는 전년 실적대비 50% 증가한 2억엔이 되어 경상 흑자화에 크게 기여하였다.